

전력공급 숨통 급하지만... 안전 철저 확인했나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 오락가락 왜?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 확인 시간 걸린다더니 원전측·원안위 말바꾸기 수차례 신뢰성 논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한빛(영광)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 전력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재가동 승인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

력과 원안위가 3일 동안 수차례 말을 바꾸는 등 혼선을 초래해 원전 정책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원안위는 9일 오후 1시께 내부 회의를 열어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빛 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

한다고 밝혔다.

원안위 승인에 따라 한빛 3호기는 10일 오후부터 전력공급에 들어가 13일 이후 최대 출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전체 23기 원전 중 가동 원전은 14기로 늘어나게 돼 빠른 전력수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계획예방 정비에 들어가 제어봉 안내관 균열을 바꾸는 등 혼선을 초래해 원전 정책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원안위는 9일 오후 1시께 내부 회의를 열어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빛 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

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재가동 승인 배경을 밝혔다.

원안위가 불과 하루 전(8일)까지 안전성 검증 평가와 상관 없이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 확인에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재가동 승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원안위는 지난 6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3호기 안전성 검증 평가 보고 회 뒤에도 "3호기에 사용된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가리기 전까지 재가동 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전에 워낙 많은 부품이 쓰여 시험성적서 위조 부

품 확인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재가동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3일 만에 모든 부품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상없음으로 확인했다는 애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루 만에 재가동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관련, 전력 수급 불안을 이유로 시험성적서 위조 검증이 소홀히 진행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도 8일 오후부터 한빛 3호기의 발전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가 몇 시간 만에 뒤늦게 재가동 일정을 연기한다고 반복해 혼란을 초래해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빛원전 측은 8일 오후부터 한빛 3호기의 발전을 재개해 9일 오후 9시 재가동 절차에 착수, 12일에는 출력 100%에 도달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가 이날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따라 재가동 승인을 미뤘다.

원안위 관계자는 "9일 오전 한빛 원전 3호기 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위조 사실이 없음이 최종 확인됐다"며 "한빛 3호기뿐 아니라 모든 원전을 조사하는 중이라 하루 이틀새 되는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애초 이달 7일까지 계획 예방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던 한울(울진) 5호기는 아직 추가 확인 중이라 재가동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개구리는 모내기

한새봉두레(대표 박선화) 회원과 일곡동 주민 300여명이 9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새봉 개구리논에서 전통 손모심기를 하고 있다. 한새봉 개구리논은 지난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2010 잘 가꾼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 해질 19시 46분 / 달출 06시 32분 / 달몰 20시 53분

구름 사이 햇빛 가끔 구름 많겠다.

구분	구름량	기온
광주	구름많음	20/29℃
목포	구름많음	19/26℃
여수	구름많음	19/24℃
나주	구름많음	19/29℃
완도	구름많음	19/25℃
구례	구름많음	19/28℃
강진	구름많음	19/25℃
해남	구름많음	20/26℃
장흥	구름많음	19/28℃
순천	구름많음	18/26℃
영광	구름많음	19/27℃
진도	구름많음	19/26℃
전주	구름많음	18/30℃
군산	구름많음	19/29℃
남원	구름많음	17/29℃
홍산도	구름많음	18/2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0.5~1.5m 경고 높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1.0~2.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목포 03:20 08:34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여수 15:07 20:2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여수 09:52 03:5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여수 22:25 15:54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20/28	21/27	20/29	20/31	20/32	21/32

광주서도 규모 2.7 지진... 주민들 '화들짝'

광주시 한복판에서 19년 만에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새벽 5시50분께 광주시 동구 동남동쪽 3km 지점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약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순천, 여수 지역 기상청에서도 접수됐다"고 말했다. 규모도 크지 않아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도심 인근에서 발생했 탓에 지진임을 묻는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기상청과 소방서에 잇따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지난 1984년부터 1994년까지 10년 동안 규모 1.9~2.6 규모의 지진이 모두 4차례 관측됐다. 이번 지진은 계곡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광주에서 5번째 발생한 것으로 가장 큰 규모다.

기상청 관계자는 "경계면에서 판이 충돌하며 발생한 응력을 해소하기 위해 지진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일반적인 현상으로 차후 지진의 규모가 커지거나,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박정렬기자 halo@

무인발급기서 등·초본 떼면 수수료 반값 할인

안행장정부는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민원창구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똑같이 수수료 400원을 내야했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무인발급기 이용시 할인

혜택이 생겼다. 개정안에는 수수료 감면 외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간소화 ▲최고조(催告狀) 발송 전 휴대전화로 사전 안내 ▲분실된 구(舊)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 명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전입가구를 열람하려면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든 가능하다. /연합뉴스

故이한열 열사 피문은 옷가지 손상 심해

당시 티셔츠 혈흔 탈색 등 수습점 사료 가치 크지만 비용 등의 문제 보관 위기



의 보관을 두고 이한열기념사업회와 고민에 빠졌다.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보관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 그가 사용하던 물품과 그가 쓴 글, 사진 등 관련자료 수습점이 전시돼 있어 매년 2000여명의 시민이 이 곳을 찾는다. 최루탄을 맞아 쓰러질 당시 그는 학교 이름(YONSEI)이 새겨진 파란색 티셔츠와 러닝셔츠, 흰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착용했으며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사진)

혈흔과 최루가스, 땀으로 범박이 뒀던 옷은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그러나 한 짝만 남은 운동화는 밑바닥의 절반 이상이 부서졌다. 선명했던 티셔츠의 혈흔은 색이 바랬다. 연세대 박물관 이원규 학예사는 9일 "시간이 흐르면서 기본 재질이 망가지는 데다 당일 혼잡한 상황 속에서 팔과 피, 최루가스, 응급약품 등이 섞여 옷 자체가 많이 손상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열사의 묘기와 연세대는 지난해 처음으로 교내에서 그에 관한 전시회를 열었고 흥분소독, 탈산처리 등 전문 보존처리를 약속했다. 기념사업회 측은 적절한 보관시설을 갖추려면 약 1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모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폭염 취약 사업장 고용부,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실외작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이를 넘게 지속할 경우 폭염주의보가, 같은 기간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일 경우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고용부는 9일까지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유리가공)과 실외사업장(조선·건설·항만하역)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올 여름휴가는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떠나세요!

광주/전남 기획상품

편안한 무안출발 전세기 상품

마카오/홍콩

7월27일,30일,8월 2일, 5일 2박 4일(총4회)

상품구분	상품명	가격
4성급 호텔	[CHPF05-NX1] *오르막 버스*광주/오르막버스* 마카오/홍콩 4일 899,000원 ~	
4성급 호텔	[CHPF07-NX1] *실식상조* 새사라를 환영에 마카오/홍콩/심천 4일 949,000원 ~	
4성급 호텔	[CHPF05-NXA] *새라를 환영*마카오/오르막버스* 마카오/홍콩 4일 1,199,000원 ~	
4성급 호텔	[CHPF05-NXC] *NO TIP*홍콩/360도시시* 마카오/홍콩 4일 1,099,000원 ~	

전체의 휴양지 필리핀 세부

8월7일 ~ 8월17일(총4회)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상품구분	상품명	가격
4성급 호텔	[APPF01-22] 세부 4일/5일 899,000원 ~	
4성급 호텔	[APPF01-22] 세부 4일/5일 1,099,000원 ~	
4성급 호텔	[APPF02-22] 세부 4일/5일 999,000원 ~	
4성급 호텔	[APPF02-22] 세부 4일/5일 1,199,000원 ~	

상품구분	상품명	가격
장주출발	[광주·전주 수송비 포함] 백두산 4일 /5일 7월13일 1,180,000원(백+일) 8월20일 1,280,000원(백+사+일)	
무안출발	북경 299 특가! 7월 9일, 16일(화) 3박 4일 299,000원	
집중모객	[JKP764-BKF] *특가* 힐링산책 ~ 7월 특급 세키아호텔 북류스 부권리 3박4일 6/15~7/17(광주) 199,000원	
국내/제주도 상품	[AKPK73] [매키지] 제주도 3일 생생 웰빙투어/세계자연유산 324,000원 ~	
	[AKAK72-79] [자유여행] 제주도 3일 숙소+항공+렌트 포함 319,000원 ~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료,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인정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익한 시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로구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로구) ■관광블로그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통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